"茶는 나를 탐구하는 벗이죠"

낮에는 차 한 잔
밤에는 잠 한 숨
푸른산 흰구름
함께 무생사(無生死)를 말하네.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걸까.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이야기. 여기 차(茶) 한 잔에 그 답이 담겨져 있음을 향기로운 불심으로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

산문밖의 禪

茶人 박동춘 씨

창문너머로 보이는 울창한 숲의 향취에 갖 달여낸 작설차 향내를 징검다리로 처음 마주한 과천서당의 훈장 박동춘선생(44).

"저는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단지 차를 즐기는 편에 지나지 않아요" 툭 던진 한마디.

진실로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차의 선(禪)경지에 이른 것인가. 무엇이든 즐긴다는 것은 이미 그 가치와 도(道)를 아는 것이기에 박선생의 겸손은 그가 입고 있는 헐렁한 티셔츠 차림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왔다.

마른차 생잎처럼 피는 모습보며 '본래 자기' 공부

"그래요. 저는 차를 사랑합니다. 차와 인연을 맺은 것이 24살때였으니 벌써 20여년이란 세월을 차와 함께 살아온 셈이네요. 은은한 향의 차 한잔, 그것을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잡념을 떨쳐버릴수 있어서 좋지요. 그 맛도 맛이지만 차를 즐겨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묘한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침내 차를 사랑하고 차와 함께 살아온 세월을 말하는 박선생의 눈동자가 차의 생잎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입과 코로 나오는 향내

"차(茶)의 세계는 곧 선(禪)의 세계입니다. 차는 다루는 사람의 정성과 청탁(淸濁)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무욕의 경지에서 차를 탐미할 때만이 진정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있지요."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연수부에서 한문을 공부하던 중 해남 대흥사 응송 영희스님과 인연을 맺어 본격적인 불교공부와 차공부를 시작한 박선생은 그러나 차의 일상적인 영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에 여유를 주죠. 눈동자를 맑게 하고 생각의 깊이도 더해주죠. 그래서 생활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호품이라고 생각해요."

향기, 여유, 빛깔, 대화, 명상. 삶을 아름답게 색칠하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차 한잔에 담겨져 있음을 말하는 박선생.

"바짝 말랐던 차가 얼마간 물속에 있으면 부서지지 않고 처음 딸때의 생잎모양 그대로 되살아 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래불성은 살아가면서 모든 번뇌망상과 무명에 가려져 볼 수 없게 되지만 이걸 깨달으면 자신본래의 참불성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뭐랄까요 바로 그런 이치가 차가 다시 생잎처럼 피어나는데 담겨져 있다고 할까요."

박선생의 차얘기는 어느새 불법에 다가와 있었다.

"차로 명예도 이익도 구하지 말라던 스님의 가르침 명심하고 있어요"

"대흥사에서 1년쯤 지났던 어느날인가 새벽 3시쯤으로 기억돼요. 스님과 함께 막 딴 햇차를 마시는데…, 물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향으로 된 덩어리가 넘어가는 걸 느꼈어요. 조금있으니까 뱃속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향이 입과 코로 나오더군요. 그 이후 아직까지도 그 환상적인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불교와 차와의 20년 인연속에서 아직까지 그 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는 것일까.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두 손으로 감싸안은 찻잔에 흘러내렸다.

다시 찻잔을 입에 대며 올해로 8년째 차를 만들어 1백여명에게 무상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박선생. 그를 다인(茶人)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건 차로 명예도, 이익도 구하지 말라던 스님의 가르침인 평상심(平常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잎을 딴다는 것은 신성한 작업이예요. 삼가고 또 삼가고. 이것을 완성된 차로 만들어내기까지 혼을 불어 넣지 않으면 제대로 된 차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다인(茶人)이라는 말에 펄쩍 뛰는 박선생.

'차 만들기' 신성한 작업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차라도 그것을 탐미하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진정한 차의 세계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었다. 쉽사리 풀리지 않을 듯한 삶의 이야기, 그것은 결국 제대로 차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삶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의 철저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박선생은 차를 통해 얘기한 것이다.

자신의 차를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기를 꺼려하는 박선생. 대중화도 좋지만 그로인해 명예와 이익을 구하게 될지도 모를 자신을 경계하는 까닭이다.

"차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그 맛과 향을 느끼며 차를 벗삼아 나를 탐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길이 차를 아끼는 사람의 평생 가야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단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불심깊은 인연을 만나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다는 박동춘선생.

빈 찻잔에 다시 자신의 혼을 따르고 따뜻한 향내는 어느새 모락모락 정성스런 손틈새로 피어 오른다.

경기 과천=한명우 기자

삽화 · 이기선

'앙갚음' 마음 버릴때 자비나와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㉚

화 합

오늘날 사회는 날로 복잡하다. 언어적 마찰로 말미암아 사회적 물의를 자아내게 된다. 언어사용의 남발, 행위의 자존성으로 상대와 불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은 자존심을 앞세워 상대를 예속시키려는 횡포를 부린다. 부처님 당시에도 작은 문제를 갖고 도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소한 행위를 제어하는 마음을 길러야 할 것이다. 여기 한 예화를 살펴보자.

부처님께서 코삼비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어떤 제자가 자기는 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너는 계를 범하였으니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범하였느니, 범하지 않았느니 서로 시비하다가 마침내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제자가 대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물과 젖 합하듯 행동 삼가야

그러나 이 제자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여 교리와 계율에도 밝았으며 도 닦는 마음이 견고했다. 또한 친한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곧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고 동정을 얻어 한 무리가 되어서 자신을 내쫓았던 대중들과 싸움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었으며 꾸짖고 욕설을 하였다.

허물만 보는 어리석음

부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걱정을 하시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교단의 평화를 깨뜨리는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먼저 제자를 쫓아낸 대중들에게 가셔서 훈계하며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너희들이 다른 제자의 허물만 보고 미운 생각을 내어 경솔하게 제자를 쫓아낸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쫓겨난 제자에게로 가셔서 말씀하셨다.

"제자여, 너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직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비유하자면, 여기에 어떤 제자가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 제자는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은 죄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 죄지은 제자는 상대편 제자들에 대해서 '이 스님들은 사실상 오랫동안 수행을 한 이들이라 교리와 계율에도 밝고 도 닦는 마음이 견고한 이들로서 자기 개인의 일로 욕심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또는 아집을 내지 않는데, 다만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에 불화가 일어나며 싸움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고 대중의 화합에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처님법을 위해서라도 그 죄를 인정하여 대중공사에 순종하여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여러 제자들을 모아 여섯가지 화합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여기 여섯가지 화합하는 법이 있으니 잘 기억하고 존중하여, 이것에 의지하여 화합과 단결로써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

① 계율을 같이 지니고,
② 소견을 같이 지니고,
③ 공양을 똑같이 나누고,
④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고,
⑤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⑥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라."

부처님께서는 이튿날 아침에 코삼비에 들어가 걸식을 마치고 절에 돌아오셔서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여섯가지 화합法 명심

"제자들이여,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때에는 각자가 행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법답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참아야 하는 것이며 부드러운 사랑으로 법답게 노력해야 한다.

화합은 물과 젖을 합한 것과 같은 것이니 부처님 법을 같이 배워서 안락하게 공부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게송을 읊으셨다.

오래 보지 말고 빨리 보지도 말라
원수는 크든 작든 앙갚음하지 말라
원한은 증오로써 가셔지지 않나니
오직 갚음이 없음으로 원한은 사라진다.

사람들이 제일 갖기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앙갚음의 마음이다. 이 앙갚는다는 선점의식(先點意識)이 사라지면 상대를 이해하는 자비심이 솟구친다. 우리는 앙갚음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화합의 울타리에서 노래할 것이다. 화합은 어디서 오는가. 앙갚음의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 내 마음속에 기름이 있으면 우유로 만들 때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행은 화합으로 가는 가장 가깝고 직행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공 고

불기 2539년도
대한불교 경승단 연수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경승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일부 결원된 경찰관서의 경승 충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승 연수교육을 실시하오니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회 일정** : 불기 2539년 6월 23일(금) ~ 6월 24일(토)
- **연수회 장소** : 경기도 화성군 신흥사 ☎ (0339) 57-2695
- **연수대상** : 전국 경찰관서 소속 경승, 신규 경승 지원자
- **연수교육비** : 5만원(교육비, 교재비, 식비 등)
- **연수교육후**, 경승활동이 미진한 곳은 해임하고 신규 경승을 위촉할 예정임.
- **준비물** : 가사장삼, 세면도구
- **교통편** : 가) 대중교통 : 수원 시외버스터미날에서 서신행버스 신흥사앞 하차
  나) 승 용 차 : 수원-비봉-남양-마도-사강-서신-신흥사

▷ 미리 접수받습니다 : 전화나 편지로 6월 17일까지(부득이한 경우, 당일 접수 가능)
Tel (02) 720-7060~4 / Fax (02) 720-7065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참조 : 6월 23일 오전 10시까지 조계사에서 모여 함께 출발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화성 신흥사에 12시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6월 일

대한불교 경승단 총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광복 50주년 기념 및 도덕성 회복 기원대법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광복 50주년과 민족분단 반세기를 되돌아보며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인과법칙을 통하여 사회윤리를 바로 세우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심이 깊으신 불교계 지도자를 모시고 기념법회 및 강연회를 마련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동참하시어 더욱 뜻깊은 법연의 자리가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995년 6월 17일(토) 15:00 ~ 17:00
- 장소 : 동국대학교 중강당(중구 필동 3가 소재)
- 식순 :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삼귀의례
  - 찬불가
  - 반야심경봉독
  - 헌화 및 헌향
  - 개식사:김용직 회장(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관음종 전국신도회 회장)
  - 법회:오녹원 이사장 스님(동국대학교)
  - 격려사:이홍과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관음종 총무원장)
  - 축사:송석구 총장(동국대학교)
  - 발원문:김철회 회장(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공동회장, 태고종 전국신도회 회장)
  - 사홍서원
  - 폐회선언

문의전화 : 732-9155, 734-9917 / FAX : 735-88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84-1 삼송빌딩 802호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대표회장 김 용 직
공동회장 김 철 회 합장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씹는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T.02-737-8881
F.02-737-0697

부산지사
T.051-634-5114
F.051-634-5188

광주지사
T.062-375-9986
F.062-371-7544

대구지사
T.053-427-8008

목포보급소
T.0631-281-2534

공주보급소
T.0416-856-3280

"2천만에 깨달음을"